

시총 등 상장폐지 요건 대폭 강화… 코스닥 최대 220곳 퇴출

금융당국, 상장폐지 개혁안 발표
시총 기준 조기상향·공시관리 강화
‘다산다사’ 구조로 시장신뢰 회복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기준을 조기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하는 등 4대 요건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기존 예상 50개사 내외에서 약 150개사,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실기업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연명하면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을 앞당긴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총 요건은 올해 1월 40억원에서 150

억원으로 강화된 데 이어,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상향 주기도 매년이 아닌 매반기로 조기화한다.

시총 기준을 일시적으로 맞춰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하회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웃돌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도 차단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공시위반 기준은 최근 1년간 공시별점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만 적발돼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이 같은 4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도 속도를 높인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 담당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심사 3개팀에 신설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 규모로 가동한다.

코스닥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도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상장폐지가처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거래소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방안이 반영되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약 150개사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동전주 액면병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20여개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 퇴출과 함께 혁신기업 상장 지원 제도로 병행해 시장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증시 거래 급증… 증권업계, 실적개선 ‘청신호’

지난달 일평균 거래 62조 돌파
연초 ETF 수익률 50% 웃돌아
일각선 과열 경계 목소리도

증권주 목표 주가가 잇달아 상향되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실적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삼성증권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일회성 비용 영향이 크고 펀더멘털 훼손은 제한적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의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2162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손익은 전년 대비 76% 늘었고, 리테일 고객 자산 규모도 431조9000억원으로 1년 새 43% 확대됐다.

증권업종 강세는 ETF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1일 기준 증권업종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50%를 웃돌고 있다. 전날 기준 ‘TIGER 증권’ ETF는 54.8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HAN

ARO 증권 고배당 TOP플러스’ ETF와 ‘KODEX 증권’ ETF도 각각 53.88%, 53.30%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파른 수익률에 개인 투자자 자금도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연초 이후 TIGER 증권 ETF에는 170억원이 순유입됐고, HANARO 증권 고배당 TOP플러스와 KODEX 증권 ETF에도 각각 57억원, 208억원의 순매수가 몰렸다.

증권사 실적 기대 역시 업종 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1.2% 증가한 1조9150억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했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기며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은 호실적과 배당 매력에 부각되며 목표주가가 약 20% 상향됐다. 키움증권은 NH투자증권의 목표주가를 3만2300원으로 제시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4183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브로커리지 수수

료 손익도 전년 대비 98% 증가한 1932억원에 달했다. 올해 배당수익률이 6%대 중반에 이를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거래대금 급증은 증권업황 개선 기대를 더욱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다. 지난 달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 약 42조원, 넥스트레이드 약 20조 4000억원을 합쳐 62조원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89.1% 급증한 규모다. 고객 예약금과 신용거래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나증권은 “1월27일 이후 고객예약금이 100조원을 상회해 6일에는 109조원을 기록했고, 신용거래잔고도 31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증권주를 오늘이 테마로 제시했다.

다만 증권주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증권사 위탁매매 부문이 국내 주식거래 수요와 시장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증권주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증시 호황 국면에서는 금리 변동성 등 리스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허정윤 기자



IM증권, 지역사회 발달장애 근로인 지원

IM증권은 지역 내 발달장애 근로인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호철 IM증권 경영전략본부장(왼쪽 세 번째부터) 정호철 IM증권 경영전략본부장과 조기형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증권

한투증권-골드만삭스, 5000억 공동투자 계약

부동산 선순위 담보대출 역량 강화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와 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선순위 담보대출 공동투자계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유동성 경색 속에서 글로벌 IB 자본력을 활용해 우량대출 투자와 조달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자금력과 대체투자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자산에 공동투자와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의 유동성과 글로벌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동투자를 추진하여 대규모 조달 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동투자계약(Facility)은 부동산 선순위담보부 대출 투자에 대해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및 수익 구조를 강화하고 우량 선순위 대출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 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국내 1군 시공사와 진행 중인 공동주택 프로젝트파이낸스(PF)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였으며, 복합리조트 담보대출과 공동주택 미분양 담보대출 등 추가 프로젝트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향후 다양한 국내 부동산 개발 및 실패 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계획이며, 투자 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골드만삭스와의 공동 투자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준 골드만삭스 공동 한국대표는 “이번 협업은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자본과 전문성을 통해 한국의 신흥 경제와 산업 발전, 그리고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지난해 695개사 33.7조 유상증자

예탁결제원 3자 배정 절반이상 차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규모가 총 695개사, 33조69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년(719개사, 26조6790억원) 대비 증자 회사 수는 3.3% 줄었지만, 발행금액은 26.3%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6개사가 16조8538억원을 발행하며 전년 대비 금액이 98.8% 급증했다. 코스닥시장은 231개사, 4조7798억원으로 회사 수

는 소폭 늘었지만 발행금액은 7.2% 감소했다. 코넥스시장은 35개사, 3172억원으로 금액이 72.3% 증가했고, 비상장사는 373개사, 11조7449억원으로 8.7% 줄었다.

배정방식별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806건, 17조8477억원으로 전체의 52.9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주주배정 방식은 92건, 11조9268억원(35.42%), 일반공모는 119건, 3조9212억원(11.64%)으로 집계됐다.

유상증자 금액 기준 상위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조2188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고려아연(2조8336억원), SK이노베이션(2조원), 삼성SDI(1조6549억원), 포스코퓨처엠(1조10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발행 주식 수 기준으로는 한온시스템이 3억4800만주로 가장 많았으며, 위니아에이드(1억6800만주), 오가니티코스메틱홀딩스(1억4700만주)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무상증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무상증자 발행규모는 총 66개사, 8억5900만주로 전년 대비 회사 수는 24.1%, 주식 수는 25.0% 각각 줄었다.

/허정윤 기자